

21세기 중국이 급격하게 부상(浮上)함에 따라 세계인의 관심은 중국을 향하고 있다. 또한 중국이 군현대화와 군사대국화를 빠르게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은 동북아 지역의 세력균형과 한국의 안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중국은 1978년부터 시작된 개혁개방 정책의 성공으로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루어 오고 있으며, 경제성장의 결과로 축적된 부(富)를 중국군의 현대화에 투입함으로써 중국의 군사위협이 대폭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중국군의 급격한 변화는 세계인의 관심과 우려를 낳고 있으며, 중국위협론을 뒷받침하는 하나의 실체적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본 논문은 현실주의에 기반을 두고 있는 중국위협론에 대해 군사적 측면을 위주로 분석하고, 중국위협론이 한국에 주는 군사적 함의를 도출하는데 초점을 맞출 것이다. 중국위협론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중국은 주변국을 위협할 군사적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가? 둘째, 중국이 이러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면 이를 주변국에게 사용할 의도가 있는가? 셋째, 주변국은 중국의 제반 능력과 의도에 대해 자국의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는가? 본 논문은 제시된 세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된다는 연구결과를 밝혔다. 한국에 대한 중국위협론이 성립함에 따라 한국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비하는 다각적인 전략적 대응이 요청된다.

: , , , , , ,

I. 서론

중국은 1978년부터 추진한 개혁개방 정책의 성공으로 사회주의 체제의 비효율성을 상당부분 극복하고 눈부신 성장을 이룩하였으며, 21세기에 접어들면서 세계인의 관심은 중국을 향하고 있다. 명실공이 중국이 미국과 더불어 G2국가의 반열에 오른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동북아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중국은 한반도와 국경을 맞대고 긴밀한 관계를 형성해 오고 있다. 따라서 중국의 부상에 따른 영향력은 동북아 지역의 세력균형과 한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다. 중국은 마오쩌둥(毛澤東)이 장제스(蔣介石)와의 내전에서 승리하고 1949년 10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를 수립한 이래 경제정책의 잇단 실패로 인해 줄곧 가난한 나라였다.

이러한 중국이 급격하게 부상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중국지도자는 바로 덩샤오핑(鄧小平)이다. 덩샤오핑은 1978년부터 개혁개방 정책을 추진하여 성공시킴으로써 중국의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끌었다.

중국은 1950년 항미원조(抗美援朝)를 명분으로 참전한 한국전쟁, 1962년 인도와의 국경 무장충돌, 1969년 구소련과의 국경선에 위치한 전바오 섬(珍寶島)에서의 무장충돌, 1974년 시사군도(西沙郡島)에서 베트남과의 무장충돌, 1979년 중월전쟁 등 국경전쟁을 수행하면서 입은 막대한 피해를 통해 중국군의 군비가 낙후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군현대화에 대한 당위성을 인식하게 되었다.¹⁾

그 뿐만 아니라 1990년대 초부터 최첨단 무기를 앞세운 미국을 주축으로 한 연합군에 의해 수행된 걸프전, 코소보전, 이라크전 등 현대전쟁을 접하면서 대미(對美) 군사력의 상대적 열세를 절감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중국군의 현대화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사실을 다시금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다. 이러한 중국지도부의 상황인식과 개혁개방 정책추진을 통한 경제성장의 결실로 얻어진 막대한 부(富)는 현재까지도 중국군의 현대화를 견인하는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군현대화의 방향을 정보화군 건설을 가속화하고 전략 무기체계를 갖춘 첨단 기술군을 집중 육성하겠다는 목표를 두고 튼튼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독심 있게 추진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움직임은 주변국들은 위협론적 시각에서 바라보는 경향이 있다. 혹자는 자국의 군비증강 논리로 중국위협론(the China threat theory)을 제기

1) 오규열, 『중국군사론』, 서울 : 지역사, 2000, p.96.

한다는 비판도 하지만, 아니 뎌 굴뚝에서는 연기가 나지 않듯이 이를 한낱 근거 없는 주장으로 치부하기에는 주변국들이 감수해야 하는 위험성이 너무나 크다. 국가 안보는 적이 공격해 오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전제로 한 ‘가정’을 믿어서는 안 되며,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야만 한 나라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특성상 한국으로서도 중국위협론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상황이다.

한국이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중국의 군사적 현대화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중국군에 대한 대비책 강구에는 소홀하다는 점이다. 그 이유는 현재 한반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중국보다는 휴전선을 경계로 군사적 대치상황에 있는 북한을 실질적인 위협세력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한반도 통일 이후에는 중국이 북한을 대치할 한국의 최대 위협세력으로 등장할 것이 확실시되기 때문에 중국군의 현대화가 장차 한국의 안보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할 것이다. 그럼에도 학계에서 중국위협론에 대한 군사적 관점에서의 연구는 간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중국위협론에 대한 군사적 평가를 통해 한국에 주는 군사적 함의를 도출해 보는 지적인 작업은 한국의 미래위협에 사전 대비한다는 측면에서도 중차대한 의미를 지닌다.

위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이론적 배경이 되는 중국위협론의 개념에 대해 고찰할 것이다. 또한 중국위협론에 대한 미국·일본·한국 등 주변국의 인식에 대해 비교적인 시각으로 고찰할 것이다. 둘째, 한국에서 군사적 관점에서 중국위협론이 성립되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연구 분석틀을 제시할 것이다. 셋째, 구상한 연구 분석틀을 한국의 현 상황에 적용시킴으로서 군사적 관점에서 중국위협론이 성립하는지 여부를 세밀하게 평가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중국위협론에 대한 군사적 평가결과가 한국에 미치는 군사적 함의를 논함으로서 결론에 대신 할 것이다.

II. 중국위협론의 이론적 배경

1. 중국위협론의 개념

정치학에서 안보에 대한 시각은 현실주의(realism)와 자유주의(liberalism)로 양분되어 있다. 현실주의 이론은 고대 투키디데스(Thucydides)로부터 시작되어 마키아

벨리(Niccolo Machiavelli), 홉스(Thomas Hobbes), 슈만(Frederick L. Schuman) 등을 거쳐 모겐소(Hans J. Morgenthau)에 의해 집대성 되었다.

현실주의자들은 현재 부상하고 있는 중국의 상황에 대해 고도성장의 열매인 부의 상당량을 군사력 증강에 투입시켜 지역패권을 추구할 것으로 진단한다. 과거 패권국가의 지위가 하락하고 주변부 국가들의 영향력이 제고되는 권력전환의 상황에서 헤게모니 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역사적 교훈을 통해 중국의 권력상승 작용은 이러한 국제분쟁의 소지를 내포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²⁾ 1978년부터 시작된 개혁 개방 정책의 성공으로 중국이 급격하게 부상함에 따라 동북아 지역에서 새로운 갈등요인을 유발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미국을 주축으로 한 국제사회가 중국의 경제적·군사적 팽창을 견제해야 한다는 논리가 바로 1990년대 초 등장한 중국위협론이다.

반면에 자유주의 이론은 근대 그로티우스(Hugo Grotius)로부터 시작되어 로크(John Locke), 몽테스키외(Baron de Montesquieu), 칸트(Immanuel Kant) 등을 거쳐 윌슨(Woodrow Wilson)으로 이어진다. 자유주의자들은 13억 인구를 보유한 중국의 막대한 노동력과 잠재적 시장규모가 세계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하면서 중국의 급격한 부상으로 인해 동북아 지역에서 유발된 국제적 갈등요인을 당사국인 중국이 주변국들과의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미국이 중국을 국제체제로 편입을 유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바탕으로 중국기회론(the China opportunity theory)을 주장한다.

중국위협론은 1990년대 초 미국에서 최초로 등장하여 현재는 국제정치학의 흥미로운 탐구주제가 되고 있다. 1992년 먼로(Ross H. Munro)가 발표한 “깨어나고 있는 용(龍) : 아시아의 진정한 위협은 중국으로부터 온다”라는 글은 중국위협론을 전 세계로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³⁾ 이후 거츠(Bill Gertz)의 『중국의 위협 : 미국을 전복시키려는 중국의 음모』라는 책은 미국사회에 중국위협론을 확산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⁴⁾

번스타인(Richard Bernstein)은 중국이 “민족주의와 과거의 굴욕에서 벗어나고자

2) Denny Roy, “Hegemony in the Horizon? China’s Threat to East Asian Security.” *International Security*, vol. 19, no. 1, 1994, pp.149~168.

3) Ross H. Munro, “Awakening Dragon: The Real Danger in Asia Is from China.” *Policy Review*, no.62, Fall 1992, pp.10~16.

4) Bill Gertz, *The China Threat: How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Targets America*. Washington, D.C.: Regnery Publishing Inc., 2000.

하는 열망 그리고 세계적 강대국이 되려는 단순한 욕망”에 고무되어 동북아와 세계에서 미국의 패권적 질서에 도전하고 있으며, 이러한 중국의 패권주의 야망 때문에 미국과 중국의 충돌은 필연적이라고 주장한다.⁵⁾ 이러한 중국위협론은 미국과 중국의 문제로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한국에게는 더욱 현실적인 문제로 다가오고 있다.

‘위협(threat)’의 개념과 위협의 성립조건은 중국위협론을 이해하는데 필수적인 요소이다. 국제정치학에서 다루어지는 위협은 “한 국가가 처한 국제환경에서 주어진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동원하는 물리적 능력”과 “관찰자인 정책결정자의 입장에서 특정요인이 조만간 국가에 해(害)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지칭하는 것으로서 군사·경제 등 제반 분야에서 예상 가능한 해를 의미한다.⁶⁾

위협은 단순히 힘을 보유하고 있는 것만으로는 성립되지 않는다. 위협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행위자가 상대방에게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능력(capability)과 이 능력을 상대방에게 사용할 의도(intention)를 동시에 가지고 있어야 한다. 또한 상대방이 행위자의 위협능력과 이 능력의 사용의도에 대해 상대적인 열제로 인해 위협으로 인식(recognition)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즉, 중국위협론은 중국이 상대국을 위협할 수 있는 제반 능력과 사용의도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동시에 상대국도 중국의 능력과 의도에 대해 이를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어야 비로소 성립될 수 있는 것이다.

2. 중국위협론에 대한 주변국의 인식

국제정치학의 관점에서 동북아 지역의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국들은 중국위협론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까? 먼저 중국위협론에 대한 미국의 인식으로, 냉전기 중국과의 이념대결 상황 하에서는 중국이 미국에 위협이 된다고 직접적으로 제기한 사람은 많지 않았다.⁷⁾ 그런데 1989년 발생한 톈안먼(天安門) 사건을 계기로 중국에 대한 미국의 우호감정이 크게 감소되었고, 중국을 미국이 추구하는 자유

5) Richard Bernstein and Ross H. Munro, “The Coming Conflict with America.” *Foreign Affairs*, vol. 76, no. 2, March~April, 1997, p.19.

6) 김영화, “중국위협론이 동북아 안보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전망.” 『신아세아』 제5권 제2호, 서울 : 신아시아연구소, 1998, p.105.

7) 王建偉, “美國外交戰略的調整和對華政策,” 郝雨凡, 張燕冬, 『限制性接觸』, 北京 : 新華出版社, 2001, p.106.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에 큰 위협이 될 국가로 인식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로 미국 내에서 중국에 대해 경제봉쇄를 실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져갔고, 향후에는 중국이 미국의 최고 적대국가가 될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었다.⁸⁾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미국 내에서는 중국의 경제성장과 군사력 강화가 동북아 지역의 안정과 세력균형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중국이 아시아 지역에서 패권을 추구함으로써 지역 내에서 미국의 영향력에 큰 위협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⁹⁾

그런데 미국 내에는 중국위협론과는 정반대의 관점에서 중국을 평가하는 시각도 존재한다. 미국 헤리티지(Heritage) 재단의 보고서는 중국이 대국(大國)으로 성장하는 것은 21세기 국제관계에서 가장 확정적인 발전추세의 하나이며, 이 과정은 장차 미국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진단한다. 또한 중국은 거대한 영토와 경제발전의 동력과 군사적 잠재력을 지니고 있기에 미래 국제질서의 형성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¹⁰⁾ 이는 중국기회론적 관점으로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역할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로 간주된다.

다음으로 일본에서 중국위협론이 처음으로 등장한 것은 1990년 일본 방위대학의 무라이 도모히데(村井友秀) 교수가 중국의 경제성장이 일본에 큰 위협이 될 것이라는 내용으로 『쇼군(諸君)』이라는 잡지에 발표한 “중국 그 잠재적 위협을 논함(論中國這個潛在的‘威脅’)”¹¹⁾이라는 글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중국의 급격한 부상은 동북아 지역에서 일본의 잠재적인 적대세력으로 등장할 것이며, 이러한 중국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1992년 미국 먼로 교수의 중국의 위협(China threat)을 다룬 논문¹²⁾과 1997년 먼로 교수가 번스타인 교수와 함께 저술한 “다가올 미국과의 일전(The Coming Conflict with America)”이라는 논문¹³⁾이 일본에 알려지면서 중

8) 이같은 주장은 다음의 논문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John E. Rielly, *American Public Opinion and U.S. Foreign Policy*. The Chicago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1995, p.24; Taifai Yu, “The Conduct of Post Tiananmen U.S. China Policy: Domestic Constraints, Systemic Change and Value.” *Asian Affairs: An American Review*, vol. 19, issue 4, Winter 1993, p.230.; Annette Lu, “Shattering the ‘One China’ Cocoon.” *Harvard International Review*, Winter 2001, pp.14-19.

9) Harry Harding, “Setting a New Benchmark for U.S.-China Relations.” Statement Presented to the House Committee on Foreign Affairs, February 17, 1993, p.2.

10) 吉姆·赫爾姆斯、詹姆斯·普里斯特主編, 『外交與威攝：美國對華戰略』, 北京：新華出版社, 1998, p.4.

11) “本報國際組記者楚南明新聞分析” 『今日導報』(온라인) 2009年 3月 5日, <http://www.herald-today.com/content.php?sn=272>(검색일 : 2016. 05. 20).

12) Ross H. Munro, *Ibid.*, pp.10-16.

13) Richard Bernstein and Ross H. Munro, *Ibid.*, pp.18-32.

국위협론이 크게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다.

1980년대 말까지는 일본경제가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 낮은 실업률, 고른 소득분배 등으로 전 세계의 학습대상이 될 만한 최상의 경제시스템으로 평가받았다. 그러나 1990년대에 들어와서 일본의 경제가 장기침체의 늪에 빠져들면서 ‘잃어버린 20년’이라는 오명을 쓰고 현재까지도 장기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일본은 아시아 지역에서 자국의 영향력과 지위에 대한 불안감이 증대하였으며, 중국과의 교류에도 자신감이 떨어지게 되었다.

중국이 1978년부터 추진한 개혁개방 정책의 효과가 양적·질적 팽창을 거듭하며 나타나자 과거 중국보다 먼저 역동적인 경제성장을 경험했던 일본으로서는 위협을 느끼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중국위협론에 대한 한국의 인식은 한국과 중국의 양국관계에 대한 인식에서부터 출발한다. 고대로부터 현재까지 한중관계는 침략의 역사로 점철되어 있다. 수·당의 고구려 침공을 비롯하여 원의 고려 침입, 후금과 청의 조선 침략 등 역사적으로 한국은 중국으로부터 수없이 많은 침탈을 받아 왔다. 중국이 한국을 침략했던 가장 최근의 사례는 1950년 항미원조(抗美援朝)의 명분으로 참전한 한국전쟁이다. 현재까지도 중국은 정치·외교·경제·군사 등 전 분야에 걸쳐 북한을 후원하면서 양국은 혈맹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다. 그럼에도 중국에 대한 위협론적 시각은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 그다지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중국의 위협보다 휴전선을 맞대고 한국과 대치하고 있으면서 제1·2차 연평해전, 천안함 침몰사건, 연평도 포격사건 등 한국으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도발을 서슴지 않고 있는 북한의 위협이 한국인들의 뇌리 속에는 가장 위협적인 존재로 각인된 효과가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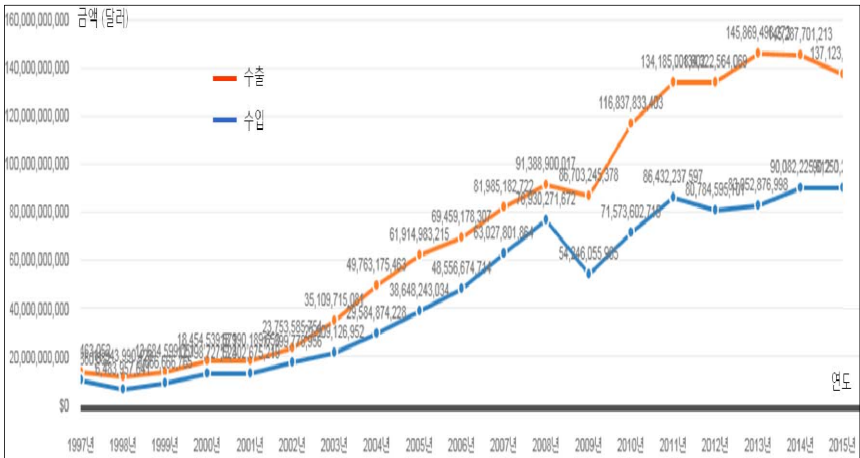
한편 중국은 2002년 중국의 국경 안에서 전개된 모든 역사를 중국의 역사로 만들기 위해 ‘동북공정(東北工程)’ 연구 프로젝트를 5년간 진행하였다.¹⁴⁾ 이 공정의 연구대상은 고구려사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헤이룽장성(黑龍江省)·지린성(吉林省)·랴오닝성(遼寧省) 등 중국의 동북 3성(東北三省) 지역에서 일어난 과거 역사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전망을 포괄하고 있다. 특히, 한국의 고구려사를 중국사에 귀속시키는 연구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이 같은 중국의 연구가 2003년에는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 또는 ‘고구려사 빼앗기’ 사업으로 알려지면서 한국인들의 관심을

14) 동북아역사재단, <http://www.nahf.or.kr/gnb07/snb01.do>(검색일 : 2016. 05. 20).

받게 되었다. 이를 계기로 한국의 언론은 중국을 동북아 지역의 패권국가로 거듭나려는 국가로 묘사하며 중국의 군비증강에 대해 경계하면서 중국위협론을 제기하기 시작하였다.¹⁵⁾

반면에 중국위협론에 반대되는 자료들도 존재한다. 한 예로 <그림 1>에서는 한국의 대중국 무역현황을 나타내고 있다. 한국의 대중국(對中國) 교역규모는 한중수교 직전인 1991년에는 44억 4천만 달러에 불과했으나, 24년이 지난 2015년 말에는 무려 51배 이상 증가한 2,273억 7천만 달러를 넘어섰다. 대중국 무역수지도 누계기준으로 약 5천억 달러에 달하는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이 같은 수치들은 중국이 경제적 관점에서 ‘기회의 땅’으로 인식되어 중국기회론적 시각을 뒷받침하는 경제지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림 1> 한국의 대중국 무역현황



출처 : 한국무역협회(KITA: The Korea International Trade Association), <http://stat.kita.net/stat/kts/ctr/CtrTotalImpExpDetailPopup.screen>(검색일 : 2016. 06. 10). 그래프의 정확한 수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를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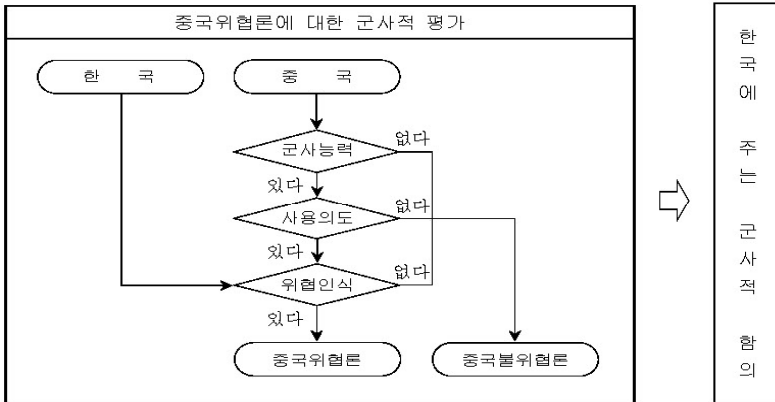
15) 다음은 중국위협론적 시각에서 한국 언론이 보도한 기사내용이다. “중국이 우주에 봉 뜨다.” 『한겨레 21』 (온라인) 2003년 10월 23일, http://legacy.h21.hani.co.kr/section-021019_000/2003/10/021019000200310230481004.html(검색일 : 2016. 04. 05).; “중국, 과연 통일한국의 동반자인가.” 『프레시안』 (온라인) 2004년 8월 7일,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2&aid=0000012399>(검색일 : 2016. 04. 05).

3. 연구의 분석틀

중국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떤 불특정 국가가 중국에 대해 자국을 위협하는 국가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군사적인 관점에서 중국위협론이 성립되는지에 대한 판단기준은 중국의 군사능력이 주변국을 위협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갖추어져 있는지에 대한 판단과 중국이 주변국에 대해 군사능력, 즉 군사력을 사용할 의도가 있는지에 대한 평가가 필수적이다. 이와 더불어 중국위협론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중국의 부상에 대한 주변국가의 인식과 용인에 관한 전제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즉, 주변국이 중국을 자국을 위협하는 국가로 인식하는지에 대한 판단결과에 따라 중국위협론의 성립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다.

본 연구의 핵심 주제인 군사적 관점에서 ‘중국위협론’이 성립될 것인지 혹은 ‘중국불위협론’으로 결론이 날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그림 2>와 같이 하나의 분석틀을 구상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틀은 군사적 관점에서 중국위협론이 성립되기 위한 전제조건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그림 2> 연구의 분석틀



첫째, 중국은 한국에게 해를 가할 수 있는 군사능력을 보유하고 있는가? 만약 이 전제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중국불위협론으로 곧바로 결론이 날 것이다. 그런데 이 전제조건이 충족된다면 둘째, 중국이 한국에게 해를 입히기 위하여 이 군사능력의 사용의도가 있는가? 만약 이 전제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중국불위협론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두 번째 전제조건도 충족된다면 셋째, 한국은 중국과의 군사적 상황에 대해 위협으로 인식하는가? 만약 이 전제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중국불위협론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앞에서 제시한 세 가지 전제조건이 모두 충족되었을 때 비로소 군사적 관점에서의 중국위협론이 성립된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중국이 군사능력 면에서 한국에게 해를 가할 수 있는 충분한 물리력을 보유하고 있는지, 이러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면 이를 한국에게 해를 가하기 위하여 사용할 의도가 있는지, 그리고 한국은 이러한 중국과의 군사적 관계에 대하여 이를 안보위협으로 인식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 중점을 두고 논의할 것이다. 또한 현 동북아 지역의 국제정치적 상황에서 중국위협론이 한국에 주는 군사적 함의를 도출할 것이다.

Ⅲ. 중국위협론에 대한 군사적 평가

중국위협론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주로 경제적인 관점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어 왔다. 경제적 관점에서의 연구가 군사적 관점에서의 연구보다 자료의 접근이나 연구성과의 창출이 용이하고 연구결과에 대한 대중의 관심도가 군사적 관점에서의 접근보다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일 것이다.

한국은 동북아 지역에 위치하여 군사강국들에 둘러싸여 있는 지정학적 여건으로 인해 과거부터 수많은 외침을 받아왔다. 특히, 중국에 의한 침략이 대부분이었지만 그동안 중국위협론에 대한 군사적 측면에서의 연구는 간헐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또한 지금까지 한국은 국가안보의 중점을 북한의 군사위협에 대비한 대응책을 강구하는데 두었다. 현존하는 직접적인 위협에 대비하는 것이 미래의 예상되는 위협에 대비하는 것보다 현실적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군사적 관점에서 중국위협론이 성립되기 위한 세 가지의 전제조건 즉, 중국의 군사능력과 사용의도 그리고 한국군의 위협인식을 평가하여 중국위협론이 성립하는지 여부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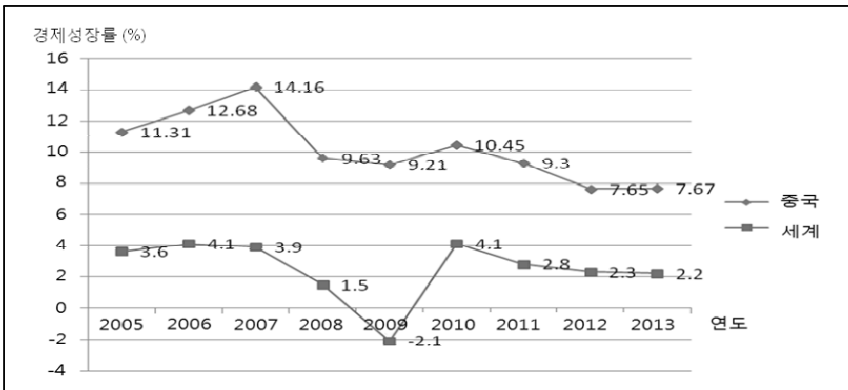
1. 중국의 군사능력

한 국가의 능력 즉, 국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정치력·경제력·군사력·문화적 영

향력 등 다양한 변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국제관계에 있어서 힘을 “한 국가가 다른 국가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정의할 때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는 변수는 군사력과 경제력을 들 수 있다. 카(E. H. Carr) 교수는 국가의 힘을 군사력·경제력·여론의 힘으로 분류하여 제시하고 있으며, 모겐소(Hans J. Morgenthau)는 지리적 요인·자연자원·공업능력·전쟁능력·인구·국민성·국민의 사기·외교능력 등 8가지를 들고 있다.¹⁶⁾ 이 논문에서는 중국의 능력을 측정함에 있어서 힘의 가장 중요한 객관적 지표가 되는 경제력과 군사력을 중심으로 논의할 것이다.

중국위협론의 출발점은 바로 폭발적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경제발전을 기반으로 한 중국의 경제대국화에 대한 예측에서 비롯되었다. “중국의 경제성장이 위협적으로 작용하는가?”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서는 중국의 경제적 능력을 정확하게 검토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즉, 중국의 경제적 성장의 현황을 분석하는 것이 중국위협론을 평가하는데 기본적인면서도 필수적인 요소인 것이다.

〈그림 3〉 2005~2013년의 경제성장률



출처 : 세계은행(The World Bank), <http://data.worldbank.org>(검색일 : 2015.01.20). 그래프의 정확한 수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계은행 홈페이지를 참조.

중국의 지도자 덩샤오핑은 집권 후 마오쩌둥의 경제정책 실패로 인민들의 생활이 참담한 경지에 이르자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편으로 1978년 공산당 제11기 중

16) 이기택, 『현대국제정치이론』, 서울 : 박영사, 1997, pp.65-83.

양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실용주의 정책노선을 채택하게 된다. 중국은 덩샤오핑이 실용주의 경제정책 노선의 일환으로 개혁개방 정책을 실시한 이래 2013년까지 30여 년간 연평균 약 10%대의 급속한 경제성장률의 기록과 더불어 1인당 국민총생산이 약 49배나 증가되는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룩하면서 모든 국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소강사회(小康社會)’¹⁷⁾를 이루어 냈다. 미국의 경제전문지 『포춘(FORTUNE)』에 따르면 중국의 압축성장 기록은 세계의 역사상 가장 빠른 것이었다. 미국이 1870년부터 1930년까지의 60년 동안에 1인당 국민소득 3.5배를 달성했지만, 중국은 1979년 이후 2000년까지 21년 동안에 1인당 국민소득이 7배 증가하는 경이적인 기록을 달성했다는 것이다.¹⁸⁾ 2012년 세계은행이 중국국무원 산하 발전연구센터와 공동으로 작성하여 발표한 『중국 2030(China 2030: Building a Modern, Harmonious, and Creative High-Income Society)』 보고서에서 중국은 지난 30년간 연평균 10%내외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하였으며, 중국이 구조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면 2030년에는 세계 최대의 경제대국이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앞에 제시된 <그림 3>의 그래프에서도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세계의 경제성장률보다 크게 웃돌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으로는 중국의 경제력 평가에 대해 지나치게 부풀려졌다는 견해도 제기되고 있다. 영국의 저명한 중국전문가 세갈(Gerald Segal)은 중국의 경제규모가 1997년 기준으로 세계 전체 GNP의 3.5%에 지나지 않으며, 구매력 기준으로 계산해 보더라도 세계 전체 GNP의 11.8%이고, 1인당 GDP로 순위를 매기면 세계 65위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있다.¹⁹⁾ 중국 경제는 위협적인 존재라기보다는 오히려 언제 붕괴될지 알 수 없는 불안정한 경제라는 비판적 평가도 있다.²⁰⁾ 중국의 경제적 위협을 과장하는 것도 문제지만 중국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것도 경계해야 할 것이다. 1인당 GNP 등 경제력의 측면에서는 미국이나 일본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개

17) 소강사회(小康社會)는 1979년 12월 6일 덩샤오핑이 일본 수상 오히라(大平正芳)의 방문시 제시한 용어로 의식주 문제가 해결되는 수준단계에서 부유한 단계의 중간단계 생활수준을 지칭하는 의미로 사용하였다.

18) Jim Rohwer, "China on the Move." FORTUNE(온라인) Monday, May 14, 2001, [http:// investorshub.advfn.com/boards/read_msg.aspx?message_id=167278](http://investorshub.advfn.com/boards/read_msg.aspx?message_id=167278)(검색일 : 2016. 05. 20).

19) Gerald Segal, "Does China Matter?." Foreign Affairs, vol. 78, no. 5, New York: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Inc., September~October, 1999, p.29.

20) Joe Studwell, The China Dream: The Elusive Quest for the Greatest Untapped Market on Earth. London: Profile Books Ltd., 2002, p.359.

발도상국가이고 한국과 비교해도 매우 열악하다. 그러나 중국은 영토와 인구가 세계 4위와 1위라는 사실과 경제규모에서 GDP가 세계 2위의 대국이다. 또한 이런 대규모 경제를 기반으로 창출되고 있는 부를 군사력 증강에 지속적으로 투입하고 있음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중국의 군사력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보아야 할 것인가? 중국이 외부에서 평가하는 것처럼 즉각적인 군사위협이 될 수 있는가? 과연 중국이 패권을 추구할 것인가? 이러한 의문점들은 한국의 안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기 때문에 심도 있게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중국은 1989년 톈안먼 사건 이후 공식적인 국방예산을 두 자리 숫자로 계속 증액시키고 있다. 또한 일부 서방의 군사전문가들에 의하면 중국의 실제 국방비는 공식적으로 발표되고 있는 예산보다 적게는 2배에서 많게는 7배까지 많다고 지적하고 있다. 중국에서 공표하는 국방비 지출에는 실제 퇴역자 연금, 무기의 연구개발비나 생산비, 무기구매 비용, 방산업체에 대한 투자비, 공안(경찰) 비용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경비를 모두 포함하여 계산하면 중국의 군사비도 미국과 비슷한 GNP의 3.5%에 이르며, 실제 구매력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중국의 국방비는 아시아 지역에서 최대 규모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²¹⁾ 중국당국은 국방예산의 증액이 이루어진 주된 이유를 국민들의 생활수준 향상에 따른 병사들의 처우개선에 따른 예산증액으로 돌리고 있다.²²⁾

〈표 1〉 2013년도 각국의 GDP 및 국방비

국명	GDP	GDP (%)	국방비
미국	\$16,768,100,000,000	3.8%	\$637,187,800,000
중국	\$9,240,270,452,047	2.1%	\$194,045,679,492
일본	\$4,919,563,108,372	1.0%	\$49,195,631,083
한국	\$1,304,553,972,501	2.6%	\$33,918,403,285
러시아	\$2,096,777,030,571	4.2%	\$88,064,635,283

출처 : 세계은행(The World Bank), <http://www.worldbank.org>(검색일 : 2015. 10. 15). 세계은행의 자료를 참고하여 재구성 하였다.

21) Anthony H. Cordesman, *The Asian Conventional Military Balance in 2002: Northeast Asia*. Washington, D.C. :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2002. 2. 26, pp.4-5.

22) “中国新增国防预算主要用于提高军人待遇.” 『人民网』(온라인) 2009年 3月 4日, <http://mil.news.sina.com.cn/2009-03-04/1138544312.html>(검색일 : 2016. 05. 20).